

2025 JUNE
Vol. 687
06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당신이 지켜 주었던

나의 세상을 향해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월호에서는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025 JUNE
Vol. 687

06

Special THEME

04. 월간 수토픽
홍수기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충주댐 홍수기 대응훈련

우리 웃을 수

08. INTRO
임솔아, 『파쇄석』 중에서

10. 일상적 사유
무언가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마음

14. 일상의 쓸모
그 옛날,
나라를 지킨 사람들

16. 사적인 투어
비가 와도 좋아
우중 마라톤의 묘미

20. 오늘 일기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함께 즐길 수

22. 다시갈지도
푸르른 날의 기억
단양

30. 보물여지도
보고 먹고 즐기고
매력 만점 단양으로 고!

34. 사람人지도
청년의 시선으로 그린 재미있단양
단양노트 이승준 크리에이터

38. 단양 한 상
서로 다른 재료가 만들어 낸 완벽한 조화
육쪽마늘 버터빵

내일 좋을 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남서남권지사의 여정

44. Focus on
2025 세계 환경의 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 수호대가 되다

46. Live on
- 주한 유럽연합(EU) 및 4개 회원국 대사 대표단 방문
- 2025 K-water Sports Day
- 호국보훈의 달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54. News on

56. 온전한 지구
바람이 업은 불씨

58. Report on
지구를 위해 걸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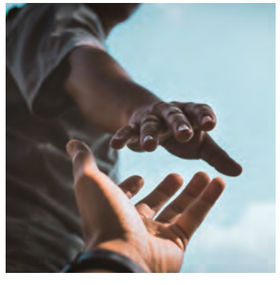
60. 워터피디아

61. 방울특파원

62. 방울사서함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 **함께 즐길 수** | **내일 좋을 수**



무언가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마음



푸르른 날의 기억
단양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6월 1일 | **통권** 687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홍수기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충주댐 홍수기 대응훈련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초단기 집중호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장마 초기부터 많은 비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한 달 앞서 비상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한국수자원공사

집중호우 선제 대응을 위한 역량 총동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형태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7월 군산 어청도에서 시작한 강우가 내륙으로 이동하며 전라·충청권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용담댐은 수문 방류 없이 버텼고, 대청댐은 유입 홍수량의 90%를 저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하류가 홍수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에 하류 지역주민과 행락객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체계를 펼치고 있다.

올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한 달 이상 앞두고 대응훈련의 강도를 높이며 실전형 홍수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

먼저 다목적댐을 사전 방류해 68.1억㎥의 홍수조절량을 확보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억㎥ 증가한 수치로, 댐 설계 당시 용량(21.8억㎥)의 3.2배 수준에 달한다. 잠실 롯데타워(148.1만㎥)를 약 4,600회 채울 수 있는 용량이다. 더불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평균적으로 약 10m 낮춰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준공된 지 평균 30년이 지난 전국의 댐이 최근 기후변화 양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다.









또한 초격차 물기술을 접목한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댐 방류 시 하류 영향까지 고려해 과학적으로 홍수를 조절한다. 실시간 기상예보에 따른 홍수 영향권을 분석하고, 실제 댐 유역을 가상현실에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해 하류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류량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하천 제방과 도시배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수문 방류 시 사각지대 없이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재난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 전파체계를 다각화한다.

전사 합동훈련을 통한 비상 대응체계 도입

지난 5월 15일 충주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전국 20개 다목적댐 관리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홍수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윤석대 사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올해 홍수기 댐 운영방안과 더불어 수문설비 특별점검 현황, 유역본부별 중점 방안 등을 나누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극한 강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과 주요 시설물 점검도 병행됐다. 이날 회의가 진행된 충주댐은 1985년 준공되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댐으로, 유역면적은 6,648㎢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강수계 국민과 산업단지를 위한 생활·공업용수 약 42%를 공급하고, 비상시에는 홍수방어 등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에 회의를 마친 윤석대 사장과 관계자들은 충주댐 상부로 이동하여 여수로·수문·비상 방류시설 등 댐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전국 댐을 대상으로 시설 동작시험을 실시하며, 비상상황에 대응해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날 이후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주축으로 전국 33개 댐 운영부서가 상시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하게 된다.

윤석대 사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평년보다 이른 시점에 전국 다목적댐 물그릇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디지털트윈 등 초격차 물기술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등 전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네 관심이 끝나고
언젠가
내 관심도
끝이
날
때
에

그때에 우리에게도 남을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언가 지키는 마음.

- 임솔아, 『파쇄석』 중에서



무언가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마음

글. 변지영 임상·상담심리학자

정의는 어디에 있나

길을 걷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움직인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나선다. 때로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도 나선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공동체일 수도, 혹은 이름 없는 타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처럼 손익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우리를 움직인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책임감이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응답하려는 몸짓처럼 보인다.

정의에 대한 감각은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정의는 언제나 기준 바깥에서 온다. 지금, 여기의 언어로는 정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로 그 부재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정의를 느낀다. 어떤 고통 앞에서, 어떤 부정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다. 그 감각은 몸에 새겨진 과거의 흔적이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와야 할 미래의 요청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면, 정의로운 마음이란 실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는 감수성이다. 때로는 꿈처럼, 때로는 죄책감처럼,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처럼.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듯이, 어떤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속삭이듯이.

따라서 정의로운 마음은 과거의 부름과 미래의 예감 사이에 놓인 간극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간극을 견디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품게 된다. 그 결심은 확신보다는 망설임과 주저 속에서 빛난다. 바로 그 망설임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자라난다. 정의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완의 질문

유령처럼 던져진 질문

개인이든 사회든, 모든 과거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인다. 역사가 보여주듯, 끝났다고 여겨진 일이나 잊혀졌다고 생각한 순간들은 되돌아온다. 어떤 목소리들은 침묵 속에서도 살아 있고, 어떤 상처들은 봉합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정의는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고 마주해야 할 것으로서 예고 없이 돌아온다. 불편한 불청객처럼 되돌아오는 시간 속에 미처 말해지지 못한 것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묻는다. "듣고 있는가, 응답할 것인가?"

정의는 돌아오는 과거와 예기치 못한 미래의 틈에서 유령처럼 나타난다. 우리는 그 유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과거에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자, 역사에서 지워진 고통이며, 아직 이름조차 얻지 못한 누군가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바로 그 유령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귀환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는 윤리적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해진다. "들을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단지 과거를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망각하거나 배제한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침묵에 귀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려는 윤리적 결단이야말로,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정의를 대하는 '알 수 없음'의 태도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몰아내자는 건 조금 위험한 태도다.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윤리적 우월감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곧 적'이라는 배제의 논리로 이어지기 쉽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라는 '올바름'의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고 질서와 정의를 내건 이데올로기.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정의를 말살해 온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웃음과 망각의 책』에 담긴 문장처럼. "전체주의는 단지 지옥일 뿐만 아니라, 낙원의 꿈이기도 하다.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꿈, 곧 모두가 하나의 의지와 믿음 아래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아무 비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 대한 꿈 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는 이항대립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알 수 없음'의 마음으로 경청할 때 정의는 가능해진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주장보다 경청, 확신보다 주저함에 가까운 마음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타인의 고통과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만든다. 정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미완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묻고, 듣고, 흔들리며 나아가야 한다. 정의는 예측 가능한 질서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응답으로 열어두는 것이다. 모든 혼란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가능성일 테니 말이다.





정의는 돌아오는 과거와 예기치 못한 미래의 틈에서 유령처럼 나타난다. 그것은 과거에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자, 역사에서 지워진 고통이며, 아직 이름조차 얻지 못한 누군가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과정이다

그 옛날,
나라를 지킨 사람들

역사는 언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발자취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단지 위기 속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되어왔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글. 조수빈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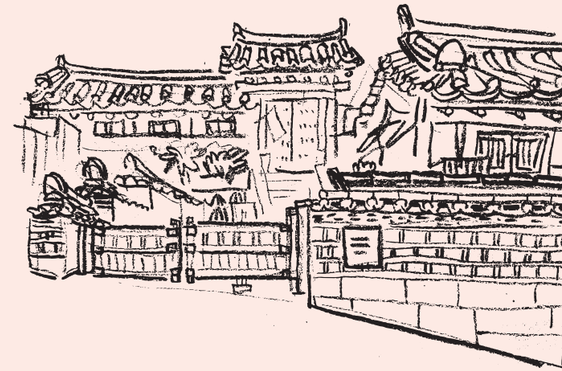
지금껏 우리말을 쉽게 배우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한 숨겨진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1년 일제강점기 조선의 말과 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이희승, 김윤경 등 젊은 학자들이 모여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의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4년 만에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작업이 중단됐다. 다행히도 그의 뜻을 '조선어학회'가 이어받아 각종 신문과 잡지, 소설, 역사책 등에 쓰여있는 낱말을 모은 뒤 뜻을 풀이하고, 단어의 형태와 표준을 정하는 등 13년 동안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37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조선어학회도 피하지 못했던 것.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원이었던 정태진 선생을 비롯한 33명의 회원들이 '문화적 독립운동'이라는 죄목으로 검거되어 3여 년 동안 투옥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결국 학회는 해산되었고 편찬 중이던 원고의 일부도 사라졌다. 그런데 광복 이후 압수되었던 원고가 경성역(서울역) 운송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발견되었고, 1947년 10월 9일, 마침내 <조선말 큰사전> 첫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거주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마을



1920년 일제의 회사령(會社令)이 폐지되고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유입되자 우리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명동이나 용산 일대 남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점차 종로 일대로 상업활동을 확장하며 주거지 역시 북촌을 침범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20년대 들어 경성의 거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에 이를 감당할 소규모 주택들이 필요했다.

일제의 잠식을 우려했던 독립운동가 정세권 선생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는 전통한옥을 변형해 현대적으로 개량한 소규모 한옥을 떠올렸다. 당시 북촌에 거주했던 권세가(權勢家)들이 자신의 한옥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정세권 선생이 구매한 후 전통한옥 구조인 'ㅁ'자 안에 소규모 개량형 한옥을 만들었다. 분양대금을 낮춰 조선인들에게 분양했으며, 일시불은 물론 분납제를 도입해 주택 구입의 부담 또한 낮췄다.

그는 부동산사업뿐만 아니라 조선물산장려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일본의 억압 속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했던 조선어학회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2층 양옥을 지어 기증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정세권 선생의 프로젝트는 우리 민족들에게 비록 국권은 침탈되었으나 일상을 지켜내고 있다는 위로이자 자긍심이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킨 경찰



전쟁은 인명뿐 아니라 그 지역의 유적을 모조리 불태우고 만다. 6.25 전쟁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소실됐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문화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천년 고찰을 지켜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차일혁 경무관이다.

1951년 5월, 8사단 대대장이었던 방득윤 대대장은 상부로부터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 및 암자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방득윤 대대장과 함께 지리산 화엄사 일대를 방어했던 차일혁 경무관은 화엄사를 불태우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었기에 어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천년고찰을 태울 수도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부하들을 시켜 화엄사의 문짝들만 떼어내 불태웠다.

차일혁 경무관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에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고 항명했다. 이처럼 그가 발휘한 지혜로 오늘날 우리는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비가 와도 좋아
우중 마라톤의 묘미

**봄비 내리는 어느 날, 러닝으로 한마음이 된 네 사람이 모였다.
흘뿌리는 비도 이들의 질주를 막을 순 없다! 이들의 마라톤 도전기와
우중 마라톤을 제대로 즐기는 법까지 함께 만나보자.**

글. 허승희 사진. 황지현

한강유역협력단
김태우 사원, 임재인 사원, 조민석 사원

여수권지사
안승후 사원



달리기로 만난 사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트랙구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이곳에 내리는 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듯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난 네 사람을 마주했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달리려고 왔어요." 여수권지사에서 근무하는 안승후 사원은 오랜만에 동기를 만난다는 설레임에 하루 전날부터 서울로 올라와 있었다며 본인의 수고스러움을 장난처럼 말했다.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네 사람은 연수기간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함께 달리던 러닝메이트 사이였단다. "아침마다 3km를 함께 달리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어요.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언제 한 번 꼭 같이 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강유역협력단으로 나란히 발령받은 김태우 사원, 임재인 사원, 조민석 사원과 달리 혼자만 여수권지사로 발령 받은 안승후 사원은 특히나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늘의 테마는 '텀블러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그래서 대회장에서도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식수대가 많은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텀블러를 들고 달린다면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K-water인으로서 달릴 때도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김태우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들의 손에 쥐어진 텀블러가 눈에 들어왔다.







낭만 합격, 우중 마라톤

마라톤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네 사람. 오래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다면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운동은 필수. 네 사람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도 모른 채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안승후 사원은 달리는 동안 신발 끈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단단히 묶었다. "같이 달려본 적은 많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건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이 크네요."라며 조민석 사원이 두근대는 마음을 내비쳤다. "마라톤은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게 큰 매력 아닐까요?" 낭만이 가득한 김태우 사원의 말을 들은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보내곤 웃었다.

드디어 출발선에 선 네 사람. 즐겁게 달리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말하던 것과는 달리 표정은 비장했다. "기록에 대한 욕심도 조금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넷이서 함께 출발해 함께 도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아침마다 달리던 그때처럼, 오늘도 호흡을 맞춰 완주하고 싶어요." 임재인 사원은 함께 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출발 전 마지막 다짐을 남겼다.

출발 신호에 맞춰 발걸음을 뗀 네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도 있는 법. 죽을 만큼 힘든 코스가 있대도 마라톤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완주에 성공했다. 그들의 인생 코스에서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더라도 함께 이끌어 줄 이 우정이 피니시 라인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제대로 달리기 위한 마라톤 가이드



01

신발 끈은 꽉! 그러나 발등은 편하게

운동화 끈을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발이 헛돌고, 너무 세게 묶으면 혈액순환에 무리가 올 수 있다. 특히 발등은 살짝 여유롭게 두되, 발목과 뒤꿈치는 잘 잡아주는 게 키 포인트!

#러닝화 #매듭은 단단하게
#발등은 넉넉하게

02

러닝 전 스트레칭과 러닝 후 리커버리

러닝 전후에 몸을 잘 풀어주어야 부상을 방지하고 근육통도 줄일 수 있다. 러닝 전에는 가볍게 다리 흔들기, 무릎 돌리기 등이 좋고, 뛰고 난 뒤에도 물론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수다. 근육을 푸는 데에는 냉수마찰도 좋다. 찬물에 5분, 따뜻한 물에 3분 번갈아 몸을 담그면 근육이 빨리 풀린다.

#근육통이 두렵다면 #스트레칭
#냉수마찰



03

나만의 페이스를 지켜라

너무 과한 의욕으로 초반에 무리해서 달리면 후반에 지치기 쉽고, 부상 위험도 커진다. 처음에는 말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니 참고하자. 음악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호흡과 리듬을 느끼며 달리면 페이스를 조절하기 좋다.

#과욕은 금물 #페이스유지
#호흡조절



04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 섭취는 필수

운동을 할 때는 수분과 단백질을 꼭 챙기도록 하자. 장거리 마라톤 시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 손실이 빠르기 때문에 20분 정도 간격마다 물을 한 컵씩 마셔주면 좋다. 구간별로 물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텀블러를 챙긴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하면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간식이나 고기를 먹길 추천한다.

#운동효과 극대화 #물은 텀블러로
#피로회복은 고기로



05

기록보단 즐거움이 중요해

러닝은 단발적인 기록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고, 재미있게, 다치지 않고 뛰어야 계속할 수 있는 스포츠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달리면서 자신만의 루틴과 속도, 회복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저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축된 기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게 #꾸준히 #기록 단축



러너들 주목! 지금 달리기 좋은 러닝 코스

서울 한강공원

코스 약 30km
주요구간 여의도한강공원 - 반포한강공원
특징
- 길이 평탄하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높음
- 반포한강공원의 분수쇼

난이도 ★★☆☆☆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코스 약 5km
주요구간 달맞이길 초입 - 청사포
특징
- 완만한 언덕, 가파른 경사길이 이어져 난이도 조절 가능
-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소나무 숲길의 조화

난이도 ★★★★☆



대전 계족산 황톳길

코스 약 14.5km
주요구간 장동산림욕장 - 계족산성 일대
특징
- 부드러운 흙길 덕분에 부상의 위험이 적음
- 업힐과 다운힐이 반복되는 트레일 러닝의 성지

난이도 ★★★★☆



춘천 북한강 물새길

코스 약 2.1km
주요구간 옛 강촌역 - 옛 백양리역-신 백양리역
특징
- 피암터널, 옛 백양역, 메밀밭과 억새밭 등 끝없이 이어지는 관광 포인트

난이도 ★☆☆☆☆







K-water연구원 김예린

스포츠 경기를 보는 동안 이것저것 먹고 마시다 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 경기가 끝나고 나오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우리 팀에게도 운이 따라 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팀에게 좋은 기운도 주고, 환경도 지키는 일이죠!



청주권지사 김혜순

업무가 아닌 것에도 저의 지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10분은 책을 읽기로 계획을 세워 지키고 있어요.



디지털전환추진단 김규태

2025년 2월 무미건조하던 제 삶에 행복과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준 우리 아들을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퇴근 후 30분간은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 아들이 클 때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처 권정남

낙동강유역본부의 신사옥 이전으로 변화된 저의 일상.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 중입니다. 제 건강도 지키고 전기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고!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벤져스 같은 존재다.
나와의 약속, 가족, 건강, 환경 등 다양한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경기동북권지사 엄정희

칼슘, 비타민, 마그네슘 등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는 것은 제 컨디션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피곤한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랄까요?!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기술기획처 김도현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헌혈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헌혈을 하고 있는데, 헌혈을 하기 위해 몸 관리를 하느라 자연스럽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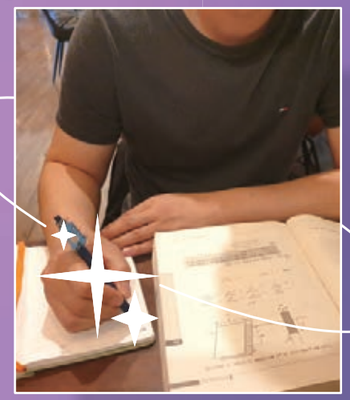
한강유역협력단 김태우

최근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깊게 자리한 곳이죠. 오늘 제가 누리는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 평온한 삶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양주수도지사 이지원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력이 계속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멀티탭의 스위치를 끄고 퇴근을 한답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완도수도지사 김부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합격하기 위해 하루에 다섯 문제씩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세워둔 계획를 꼬박꼬박 지켜 저의 목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른 날의 기억

단양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서정주 시인의 시가 떠오르고 말았다. 단양의 푸름 덕분이었다.

글, 사진. 박재현 소설가





단양강 잔도

절벽에서도 평온한 절벽

나무 데크 길은 익숙하지만 절벽에 붙어 있는 건 처음이다. '잔도'는 벼랑에 선반처럼 매단 길을 말한다. 생각보다는 덜 아찔하고 여유로운 공기가 흐른다. 바로 앞에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내 발소리도 다 듣고 있을 것처럼 한가로운 얼굴이다. 걷는 동안 무수한 초록과 마주한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색뿐만 아니라 향과 약간의 흔들림으로 반가움을 표한다. 강의 표면에 비친 모습이 멀리서 보면 완벽한 데칼코마니로 샐러드와 번의 위치가 바뀐 햄버거 같다. 길을 빠르게 걷는 이는 없다. 모두 느림보가 되어 단양의 푸름을 넉넉히 즐길 뿐이다

근처에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 있어 함께 구경하길 권한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절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버스비는 무료고 주차비는 삼천 원이다.





다시갈지도

구인사

사이의 아름다움

외국인이 한국에서 특별한 절을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이곳을 말해 줄 것이다. 단층의 목조 건물을 한 전통 사찰과 달리 이곳은 다층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것도 50여 동이 넘는데다, 산 사이의 좁은 비탈길에 있다. 꼭대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고행이다. 고행 중에 절의 아름다움이 연속적으로 다가온다. 그건 '사이'에 있다. 좁은 길이 주는 선물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다른 건물의 처마 등이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큰 여운을 준다. 꼭대기에 있는 대조사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산과 산 사이로 보이는 여러 개의 지붕들이 힘들었던 순간들을 누그러뜨려 줄 것이다.







일년 내내 기온이 15도라,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개방된 길을 다 둘러보는
데 40분 정도 소요된다.

고수동굴

지금이 유일한 순간

종유석과 석순이 어느 정도 있는 평범한 동굴을 예상했는데, 하나의 세계가 있다. 크고 화려하다. 먼 행성에서 사는 이들이 만든 것처럼. 사실 우리와 거리보다는 시간적으로 먼, 그러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곳을 주거지로 썼다. 그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상상하며 시간과 물이 응축한 작품을 꼼꼼히 본다. 저 긴 돌이 어떻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까, 하며 어렸을 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이니, 지금 보는 이들의 모습만큼은 마지막일 거라고. 그러니 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하루처럼 말이다.





두산마을에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모여 있다.
카페도 있어 커피를 마시며 시원한 전망을
감상해도 좋다.

남한강

하늘 위의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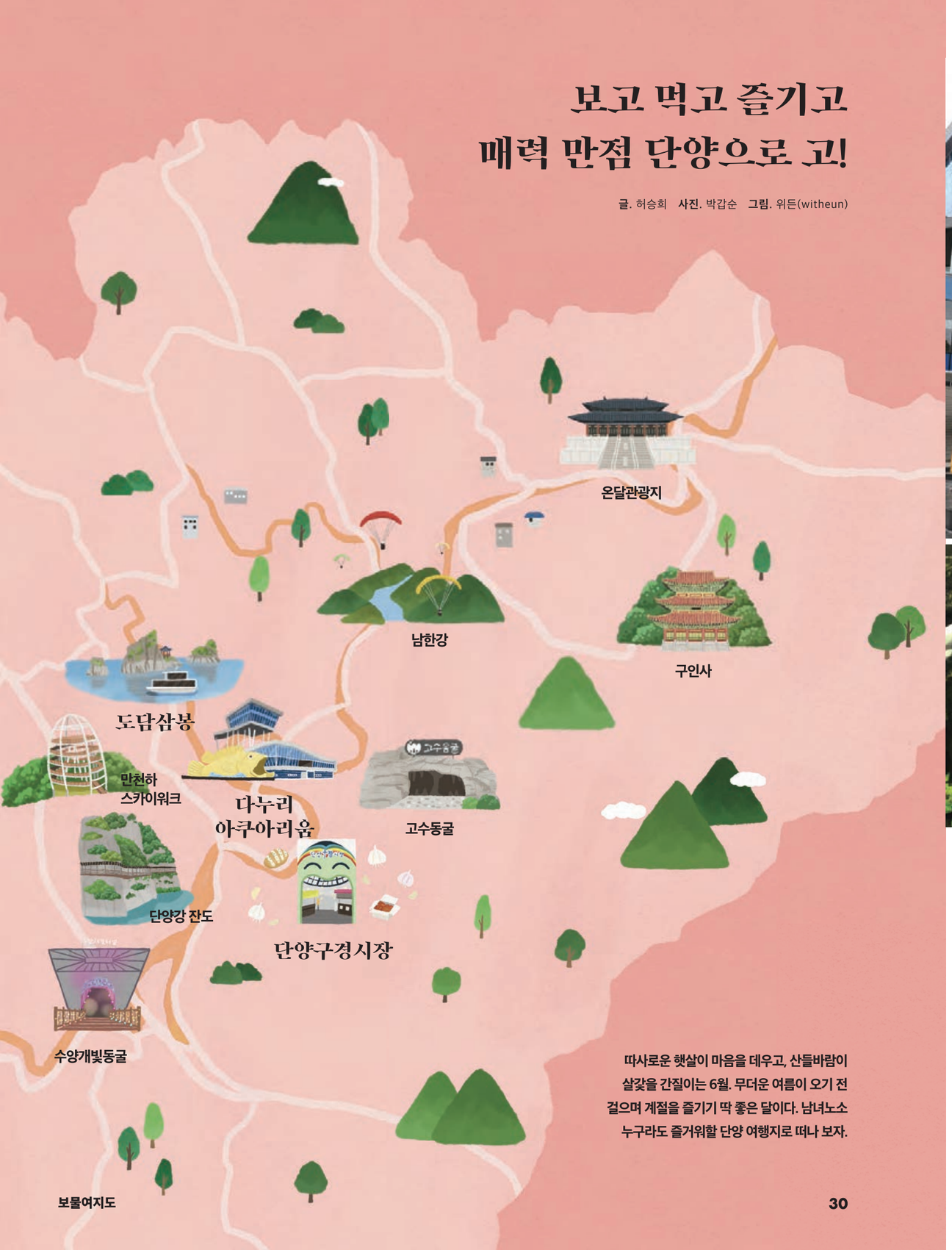
하늘 위를 유영하는 건 SF 영화 속의 일 같지만, 단양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다. 면적의 80퍼센트가 산인 데다 기후도 알맞다. 하늘을 날면 그 행위에서 먼저 탄성이 나오고, 이어서 아래에 펼쳐진 풍경에 또 다른 탄성이 나온다. U자로 굽이치는 남한강의 시원한 물줄기가 가장 시선을 끈다. 늘 하늘의 색을 따라하니 금세 친근해진다. 남한강이 감싸고 있는 시내는 블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처럼 귀여워 보이고. 활공장에서 직접 타지 않고 하늘 위로 떠다니는 패러글라이더만 봐도 미소가 나온다. 마침 팽팽하게 펼쳐진 날개가 웃을 때의 우리 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보고 먹고 즐기고
매력 만점 단양으로 고!

글. 허승희 **사진.** 박갑순 **그림.** 위든(witheun)



따사로운 햇살이 마음을 데우고, 산들바람이 살갗을 간질이는 6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걸으며 계절을 즐기기 딱 좋은 달이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거워할 단양 여행지로 떠나 보자.





다누리아쿠아리움

다양한 생물들과의 만남

샛노란 황금색 쏘가리 조형물이 반기는 다누리아쿠아리움은 단양의 랜드마크다. 다누리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 생태 아쿠아리움으로 대형 수족관과 다채롭게 꾸며 놓은 수족관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국내외 민물고기 234종, 총 23,000여 마리를 만날 수 있다. 아쿠아리움을 걸으며 은근히 귀여운 이 녀석들의 얼굴을 구석구석 뜯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3층으로 구성된 아쿠아리움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 마련된 재치 있는 포토존이 눈에 띈다.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조형물과 수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옴폭 파인 구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 들게 만든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세 시가 되면 물고기들의 식사 시간을 엿볼 수 있다. 지하 2층 메인 수조에서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직원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철갑상어 등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준다.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진행하는 것이니 걱정은 말 것.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이 시간만 되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느라 조용해진다.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물고기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물고기는 물론 양서류, 파충류, 게다가 수달과 다람쥐까지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바로 수달이다. 말랑하고 촉촉한 발바닥과 매끈한 몸매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이끈다. 이 멋진 아쿠아리움을 단돈 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단양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덕분이다. 자연 생태계의 신비로움을 이토록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다누리아쿠아리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운영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료 어른 1만 원, 청소년 7천 원, 노인/어린이 6천 원
문의 043-423-4235



단양구경시장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5길 31
운영 매월 1, 6일(5일장)
문의 043-422-1706

걸음마다 쏟아지는 맛있는 먹거리

단양구경시장은 1770년 '동국문헌비고'를 통해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선정되며 단양전통시장에서 '단양팔경에 더한 1경'이라는 의미를 담아, 단양구경시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멋진 이름이 붙은 덕분인지 단양 여행객들에게 단양팔경과 함께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이 전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큰 일교차와 알칼리성 토양 등 단양의 지리적 특성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식재료 '마늘'을 맛있게 자라게 했다. 그래서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좌판에 가득하다. 대표 메뉴로는 통마늘을 닭과 함께 튀겨 각종 양념으로 맛을 낸 마늘 통닭과 단양 마늘로 고기 잡내를 완벽히 잡은 마늘떡갈비가 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진다. 또 '빵지순례'를 참지 못하게 하는 마늘소스가 듬뿍 발린 육쪽마늘빵은 세대를 불문하고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단양구경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이 열리며,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시 방문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어른들은 옛 시장의 정취를 느끼며 추억을 쌓아 간다.







도담삼봉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

도담삼봉 유람선

운영 11:00~17:30
문의 043-422-3037





유유자적 자연 속 신선놀음

충청북도 단양군의 숨은 보석, 도담삼봉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이곳은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운 정도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의 호를 '삼봉'이라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진 곳이다. 도담삼봉은 남한강 위로 솟아오른 세 개의 봉우리가 이루는 독특한 풍경으로 유명하다. 중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양옆의 작은 봉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강물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특히, 유원지에 위치한 삼봉스토리관에서는 단양의 명소와 역사를 다양한 자료로 전시하고 있어 단양 지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담삼봉에 들렀다면 유람선을 타지 않으면 섭섭하다. 유람선을 타고 남한강을 따라 흐르면 '유유자적'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다. 도담삼봉에서 출발해 석문(제2경), 은주암, 자라바위, 삼봉대교, 금굴, 고수대교를 따라 돌아보는 코스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도담삼봉의 웅장함과 주변 경관을 다양한 각도로 감상하는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도담삼봉에 왔다면 도담정원도 둘러 보자. 도담정원에는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는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각 프레임 안에 정갈하게 담긴 도담삼봉과 사람들의 모습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도담정원을 걷다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마스코트 '방울이'와 단양군 마스코트 '마롱이'도 만날 수 있으니 함께 다정한 인증샷을 남겨 보자.





청년의 시선으로 그린 재미있단양

글. 허승희 사진. 황지현



단양노트 이승준 크리에이터

'단양노트'는 단양의 모든 것을 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구경시장의 작은 골목에서 단양의 색을 입힌 서적과 기념품을 통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승준 크리에이터를 만나봤다.



단양을 기록하는 상점

면적 780.16㎢, 인구 27,086명의 작은 군. 그렇지만 단양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리고 '단양노트'는 단양의 중심부에서 약 6년째 책, 엽서, 컵, 티셔츠, 메모지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통해 이곳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단양노트를 운영하는 이승준 크리에이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직 단양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단양과의 인연이 깊어진 건 이곳에서 헌책방 '새한서점'을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제천 출신인데, 제천과 단양이 워낙 가깝거든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며, 가끔씩만 단양에 들렀었죠. 그러다 제 미래를 그려보니 더 주체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부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서점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점을 알리기 위해 로고를 제작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고, 굿즈를 제작하는 등의 일을 했었어요."

서점을 리브랭딩했던 경험으로 탄생한 공간이 굿즈숍 '단양노트'다. 처음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각인된 '단양'이라는 이미지를 더 확장하는 일이 관건이었다. 이 크리에이터는 수익보다는 '단양의 스토리'를 먼저 짜기로 했다. **"처음에는 여러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단양의 사계절을 만나보게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방문하면서 단양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그리거나 표현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웹툰, 드로잉 등 표현 방법은 다양했죠."**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단양의 스토리에 줄기를 더하고, 단양의 풍경을 젊고 창조적인 시각이 담긴 굿즈로 제작했다.

그가 예술가들과 함께 제작한 굿즈는 단양노트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카페 거리, 패러글라이딩 명소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보는 굿즈는 여행 당시의 추억과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만나 활기를 더하다

단양은 도담삼봉, 고수동굴 같은 자연경관을 비롯해 만천하스카이워크, 카페 거리 등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며 관광객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이 크리에이터는 여러 가지 명소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단양 여권 스탬프 투어'를 만들었다. 여행객들이 여권에 표기된 상점에 방문한 뒤 스탬프를 받아오면, 단양노트의 굿즈를 전달받는 식이다. "단양의 대표적인 명소 외에 현지인들이 찾는 식당이나 숨은 여행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총 40여 명의 지역민을 직접 만나 상호에 맞는 도장 디자인을 해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다들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단양의 숨은 보석들을 혼자만 보고 즐길 수 없었다고 전하는 이 크리에이터의 표정은 밝았다.

그는 단양노트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년들과 함께 단양에서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그가 단양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만든 커뮤니티 '단양청년문화협동조합'에는 제과, 요식업,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 단양에 왔을 땐 막막했어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단양에서 창업하거나 가업을 잇는 청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돕고 유대감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 크리에이터는 청년들과 나눈 아이디어를 통해 '예쁘면 단양'이라는 제과점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마늘빵, 마늘소금빵 등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디저트, 단양 명소가 새겨진 쿠키 등을 판매했다. 현재는 '모든 여행의 순간'이라는 엽서숍을 운영하며 단양에서의 모든 순간을 한 장의 엽서로 전하고 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단양을 찾는 사람이라면 꼭 들르는 핫 플레이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을 단양노트에서

아티스트와 컬래버한 굿즈, 청년조합 창설,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에서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이 크리에이터의 꿈은 더 깊고 찬란하다. **"처음에는 저도 단양의 매력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서점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양에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는 단양 외곽의 숨은 매력까지 널리 알리는 동시에 단양노트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키우고 싶어요."**

단양노트가 위치한 구경시장은 단양의 중심지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찾는 이곳보다는 산속에 위치했었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던 새한서점처럼 그곳이 곧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목적형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크리에이터의 꿈이다. "지금은 단양노트에서 책과 굿즈만 판매하고 있는데 차차 식음료도 다루고 게스트하우스처럼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다채로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림이나 글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단양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단양노트에서 버스킹을 한 적이 있는데, 가수를 초청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여행객을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단양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란 늘 어렵고 바쁘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차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는 멈출 줄 모른다. 아직 단양에는 알리고픈 매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체험 프로그램 같은 무형의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고 싶어 마음이 바쁘단다.

작지만 매력적인 도시, 단양. 양방산 전망대, 고수동굴, 단양강 잔도길 등 자연이 선사하는 풍경은 이미 너무나 유명하다. 동시에 아직도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푸르른 자연 속을 산책하듯 걸으며 단양의 풍경을 만끽한 뒤, 지역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양노트에 들러보자. 이 크리에이터의 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단양의 진정한 매력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들어 낸
완벽한 조화

육쪽마늘 버터빵



알싸하고 강력한 향을 지닌 '마늘'과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로 입안을 감싸는 '버터'.
이 서로 다른 조합이 만나 예상치 못하게도 풍부한 맛을 낸다. 노릇하게 구운 빵은 바삭하고,
마늘 버터가 스며든 속은 촉촉한 육쪽마늘 버터빵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그림.** 결(Gyeol)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단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마늘'이다. 마늘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나뉘는데, 단양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품질 좋은 한지형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

마늘이 단양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마늘은 주변에 석회가 많을수록 식양토의 비율이 높아 마늘 통이 단단하게 자란다. 마침 단양은 대석회암층군에 속해 전 지역이 석회암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흙 자체에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인산의 함량이 적어 더더욱 마늘 생육에 유리하다.

단양 마늘은 알이 굵고 단단하며, 매운맛과 단맛의 균형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매년 '단양마늘축제'가 열릴 정도로 단양에서 마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생마늘, 흑마늘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며, 마늘을 활용한 음식 문화도 매우 발달해 있다. 단양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라면 마늘통닭, 마늘쌈밥 등이 손꼽히는데 그중 식후에 먹기 좋은 육쪽마늘 버터빵이 최근 인기 간식으로 꼽히고 있다. 동그란 모닝빵이나 바게트를 마치 마늘처럼 여섯 쪽으로 자른 다음 크림치즈와 마늘 소스로 듬뿍 버무리면 되는데, 고소하고 진한 버터 향에 단양 마늘의 알싸하고 깊은 맛이 더해져 풍미가 일품이다.

재료

모닝빵 또는 바게트, 크림치즈 150g

소스

설탕 40g, 무염 버터 100g, 우유 40ml, 마요네즈 1T, 달걀 1개, 다진 마늘 50g, 파슬리 3T

레시피

1. 크림치즈는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녹이고, 무염 버터는 전자레인지에 약 20~30초 돌려 녹인다.
2. 녹인 버터에 소스 재료를 모두 넣은 다음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는다.
3. 모닝빵 또는 바게트의 윗부분을 여섯 등분으로 자른다. 이때 아랫부분까지 완전히 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잘려진 빵 사이로 크림치즈를 아낌없이 채워 넣는다.
5. 빵의 자른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 ②에 푹 담가 마늘소스를 듬뿍 묻힌다.
6. 오븐 팬 위에 빵을 올린 다음 꼭대기에 크림치즈를 동그랗게 짜 준다.
7. 170도 예열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주면 끝!

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남서남권지사의 여정

**전남서남권지사가 걷는 길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사랑'이다. 이들은 지역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 길에서 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를
원동력 삼아 멈추지 않는다는 전남서남권지사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최의인







댐과 정수장을 책임지는 사람들

전남서남권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멀티 플레이어다. 우선 저수용량 1억 9천 톤가량의 장흥다목적댐을 운영·관리하며 탐진강 하류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하루생산량 20만 톤을 자랑하는 덕정정수장을 통해 목포, 장흥, 강진, 영암 등 전남서남지역 10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병물공장과 장흥다목적댐물문화관까지 운영하고 있기에 전남서남권지사에 근무한다는 건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댐과 수도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다고 느낄 법도 한데, 이곳 56명 직원들은 언제나 파이팅이 넘친다. 박승훈 차장은 "모든 직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대하고 있어요. 물론 일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자랑을 건넸다. 최근 이들의 고민은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상일 지사장은 "홍수기를 대비해 저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본격적인 홍수기가 오기도 전에 비가 많이 와 걱정이에요."라고 전했다. 지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노력을 지역민도 아는 것일까. 올해 4월 발표한 2024 고객만족도 결과, 100점을 기록하며 동일평가군 전체 지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
전남서남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동력이 되어

이른 여름빛이 닿아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어느 날, 수타벅스가 탐진강 줄기를 따라 전남서남권지사로 달려갔다. "늘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요!"라며 수타벅스를 호출한 박승훈 차장은 음료와 간식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산책을 하고 왔다고 전했다.

한 손에는 시원한 커피를, 한 손에는 달콤한 샌드위치를 든 직원들은 지사 앞 나무 그늘 아래 모여 특별한 순간을 마음껏 즐겼다. 이때만큼은 업무 얘기를 잠시 넣어두고 취미 이야기, 주말 계획 등을 나누며 나들이 나온 기분을 만끽했다. "수타벅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지사에서 가까운 곳에는 카페가 없어 아쉬워하던 직원들이 많았거든요."라는 이수빈 사원의 말에 정이현 대리가 "맞아요. 카페에 가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 마실 시간이 없었죠. 커피는 늘 테이크아웃하던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 수타벅스를 통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니 너무 즐거워요!"라며 엄지를 세웠다. 그런 와중에 편시연 사원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며 샌드위치를 하나 더 챙겼다. "이양록 사원이 수타벅스를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아쉬워할 것 같아 챙겨뒀어요."라며 한 손에 든 샌드위치를 흔들어 보였다.

전남서남권지사의 자랑거리로 '직원 사이의 돈독한 분위기'를 꼽았던 김성철 차장의 말이 떠올랐다. 힘이 들 때 함께 그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어 오늘도 힘을 낸다는 전남서남권지사. 여기에 '수타벅스'라는 특별한 응원을 받아 이들의 발걸음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갈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상상하며 수타벅스는 미소를 띤 채 돌아갔다.

● interview ●

늘 행복만 가득하길!

운영부 박승훈 차장

2007년에 장흥댐건설단에서 근무를 하다 지난해 17년 만에 전남서남권지사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함께 땀 흘리며 지역을 위해 애쓰는 동료들.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치 수타벅스가 저희를 찾아온 것처럼요.





2025 세계 환경의 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 수호대가 되다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캠페인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동참했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행사 진행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가 열린다.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1997년 서울에 이어 28년 만이다.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이다. '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슬로건으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모두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본사 및 댐·보 현장 지사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글로벌 실천 캠페인과 연계하여 기획됐다.

지난 5월 12일에는 본사 인근 신대천에서 약 50명의 임직원이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버려진 페트병,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탰다.





친환경 병입수돗물 생산부터 수거·재활용까지 자원 선순환 앞장

한국수자원공사는 탄소중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이행을 하기 위해 친환경 병입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병입수돗물은 가뭄, 호우, 태풍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비상식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4개 유역의 자체 병입수돗물 생산설비를 통해 생산된다. 지난 2023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생원료를 10% 활용한 PET 병입수돗물을 생산했으며, 2024년에는 재생원료 비율을 30%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병입수돗물은 '재생원료 사용인증'과 '재활용 최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는 투명페트병 수거와 재활용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무인 페트병 수거기를 통해 작년에만 13만 4천 병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였으며 새활용 우산대여소 운영, 친환경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국내 물산업 유럽 진출

주한 유럽연합(EU) 및 4개 회원국 대사 대표단 방문

유럽 주요국 대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물산업의 유럽 진출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청신호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유럽을 놀라게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기술

지난 5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한 유럽연합(EU) 및 4개 회원국 대사 대표단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한 유럽연합 대사,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면담에 이은 후속 교류의 일환이다. 면담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국내 물산업의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2022년 유럽 중남부 지역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으며, 2024년에는 중동부 지역에 6개월 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기상 현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유럽 내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물 분야를 포함한 기후·환경 전반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프로젝트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연계해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국제 연구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은 디지털트윈 기반 물재해 예측·대응 시스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홍수·가뭄 분석 기술, 위성 직수신 기반 레이더 시스템 등 첨단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안보 확보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더불어 글로벌 물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껏 돕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단순히 연구 교류 차원을 넘어, 기술의 현지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수출 기반 마련과 연계할 계획이다. 유럽 진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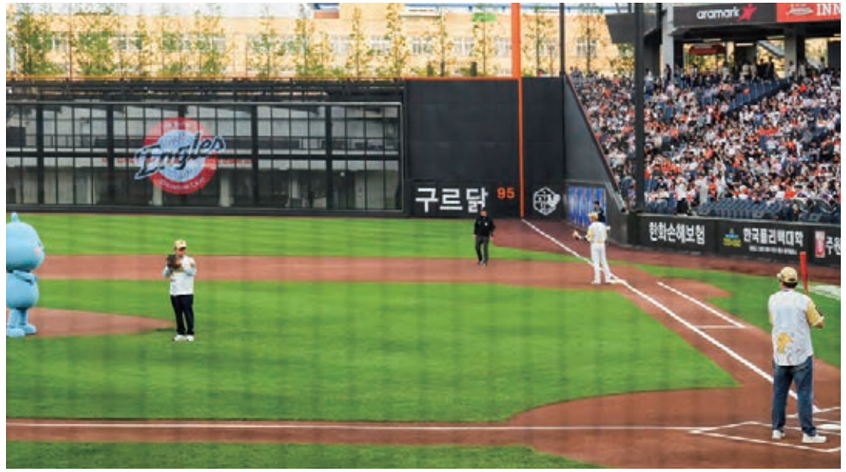
야구장에 방울이가 떴다!



2025 K-water Sports Day

지난 5월 14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가 들썩였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스포츠데이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야구 직관이 처음인 직원부터 오래된 야구 팬까지 모두 하나되었던 스포츠데이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라 더 행복한 오늘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 대전 대표 스포츠 구단인 한화 이글스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K-water Sports Day(이하 스포츠데이)도 그중 하나다. 스포츠데이가 진행되었던 지난 5월 14일 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가 인파로 가득 찼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경기장 입구 앞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 부스. 이곳에서는 스포츠데이를 맞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이 손님들은 페이스페인팅과 캐리커처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방울이 포토존과 포토부스 앞에서도 인증샷을 찍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스포츠데이는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진행되어 온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한 자리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무관리처 정관영 차장은 "올 시즌 초 처음 야구장을 와 보았었는데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데이에 오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페이스페인팅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야구'로 하나 된 사람들

경기에 앞서 오늘의 시구자인 윤석대 사장과 시타를 맡은 박기찬 노조 위원장이 마운드에 올랐다. 멋진 시구로 포문을 연 경기 내내 직원들과 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쏟아졌다.

5회 말, 클리닝 타임에는 경기 전 부스에서 한 장씩 나눠 받은 응모권을 두고 추첨 이벤트가 진행됐다. 상품은 방울이와 한화 이글스의 콜라보 굿즈인 '야구장에 간 방울이' 인형과 키링! 작년에 출시되어 한바탕 완판 기록을 세웠던 방울이 굿즈가 올해는 좀 더 당당해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아쉬워하긴 금물! 한정판 방울이 굿즈는 한화 이글스 굿즈숍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굿즈 판매 전액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오늘만큼은 직장인이 아닌 야구팬!'임을 외친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한국수자원공사 스포츠데이.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과 소통하는 동시에 직원, 가족들이 하나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스포츠데이 후일담



금강보관리단 강현우 대리

'스포츠를 통해 각자의 리즈 시절로 되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여가선용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데이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참 설레네요.

수도권수도사업단
최해명 사원

한화 이글스의 매력은 성적보다는 팬들과 소통에 매우 진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제 직장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이라니 완전 환영이죠!



수변사업처 박진형 대리

작년 스포츠데이에서 처음 야구 경기를 관람했었는데, 그때 한화 이글스가 점수차를 많이 내면서 이겼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야구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승리하던 짜릿한 순간을 잊지 못해 올해도 스포츠데이를 찾아 왔어요.





충주수도지사
송병철 차장 자녀 송채은, 친구 이랑 어린이

작년에도 아빠 따라 왔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방울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그중에서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은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기획조정실 박경훈 대리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가족 나들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페이스 페인팅을 꼭 하고 싶어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놓쳤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와서 알차게 즐길 거예요.

K-water연구원 조현식 책임연구원

요즘 야구 경기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데이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도 방울이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즐거워하더라고요. 야구는 집관보다 직관이 제맛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갈 생각이에요.





재무관리처 송진아 대리
수자원개발처 노해민 대리
공간경관처 한혜민 대리

야알못 동료들과 함께 왔는데 동료들을 야구로 입문시키는 것이 저희의 오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벤트 응모권에 당첨되어 방울이 굿즈를 손에 쥐는 것?!



경기동북권지사
최영규, 신정희, 여성수 대리

저희 지사에 야구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각자 응원하는 구단은 다르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쳤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오늘은 한화 이글스를 응원해 보려고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응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산권지사
박명우, 강하영, 채종희 대리
심재완 사원

이 구장은 처음 오는데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저희의 응원 열기로 야구장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단양수도지사 이승제 사원

딸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건 처음이라 설레네요. 특히 이벤트 부스에서 캐리커처를 그릴 때 너무 즐거워하는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더 뜻깊은 하루
호국보훈의 달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6월이면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아진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가족들도 이곳에서 묘역을 정비하고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뜻깊은 주말을 보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나라 지킨 이들에 대한 존경을 되새기는 시간

지난 5월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노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활동에 앞서 이곳에 잠들어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 앞에 나란히 선 사람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충원을 둘러보던 어린 친구들도 위엄 있게 뻗은 현충탑 앞에서 자연스레 경건해지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과 박기찬 노조 위원장의 분향에 이어 참여 가족들은 묵념을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했다.



디지털전환추진단 류근영 차장, 수도관리처 안철호 차장 가족

아이 교육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늘 활동은 저희에게도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모습은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좋은 기회로 이곳에 방문해보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태극기 꽂기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다음 지정 묘역으로 이동했다. 상석의 왼편에 어른들이 구멍을 뚫으면 깃대를 꽂는 건 아이들을 몫. 반듯하게 태극기를 꽂은 다음에는 주변의 잡초나 시든 꽃을 손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묘비를 바라보며 짧게 묵념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는 충의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자, 어른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희생을 되새기는 값진 시간이었다.



물종합진단처 반진우 차장 가족

딸이 며칠 전 학교에서 영화 <항거>를 보고 부쩍 역사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최근 서대문형무소로 견학을 다녀왔고, 올 휴가도 독도로 떠나볼까 계획 중이에요. 오늘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NEWS

K-water Monthly Magazine
2025. 06 | Vol. 687

01 아시아물위원회, 유엔환경계획 공인기관 지정



아시아 최대 물 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물 분야 공인기관 지위를 획득했다. AWC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2016년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기후적응력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에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과 안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및 사업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UNEP 공인기관 지정은 그간 AWC가 개도국에 기후위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위험관리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는 등 물안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AWC는 유엔환경총회 등 환경의제 관련 유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환경의제 설정, 전략·예산 승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상수도 운영사업 참여로 베트남 물시장 최초 진출



지난 4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알비씨 워터(RBC Water)와 베트남 롱안성 물기업인 푸미빈(Phu My Vinh)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베트남 상수도 시장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지분인수는 국내 물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수행 이래 최초 베트남 시장진출이다.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확장으로 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 요충지로, 수도 분야의 민영화가 본격화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인수를 기점으로 베트남 물시장에 전략적 진출과 함께 신규 물관리 사업 발굴, 기술 수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초격차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베트남 현지 마케팅 및 인근 지역 수출 제안에 활용하고, 국내 물기업 동반 수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03 2025 안전한국훈련 재난 현장 대응 역량 점검

지난 5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섬진강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이라는 댐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초기 상황인지 후 신속한 상황 전파, 위기수준 판단, 긴급 방류와 주민대피 완료를 목표로 대응매뉴얼에 따른 전 과정 점검을 실시했으며, 본사, 본부, 현장 3자 간 동시 연결 중계로 실제와 같은 여건 속에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04 부산에코델타시티 교통 불편 해소 협력

지난 5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에코델타시티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심 형성 촉진을 위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개 중장기 관리 신도시 중 최초로 교통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같은 지자체 중점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05 시화조력문화관 재개관

시화조력문화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화조력문화관은 이번 단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옥외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내부에는 물을 주제로 한 반응형 체험 공간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홍보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시화호조력발전소 홈페이지(kwater.or.kr/website/tligh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람이 업은 불씨



글. 이세흠 KBS 기상재난전문기자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산불 시즌'이 끝났습니다. 봄이 되면 한반도까지 남하했던 시베리아 고기압은 점차 세력을 잃고, 분리된 세력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우리나라로는 강하고 건조한 서풍이 유입되는데, 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고온 건조해집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의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실효습도가 20%대로 떨어지고, 건조특보가 내려집니다. 초목과 낙엽이 바싹 마르고 건조하니, 산불을 조심하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그중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 전역을 삼킨 초대형 산불은 이런 기상 조건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고기압이 자주 지났던 지난겨울 경북의 강수량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산림은 극도로 건조해졌습니다.
의성 산불이 동쪽으로 수십km를 확산한 3월 25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료에서 경북 대부분 지역의 순간 풍속은 초속 15m를 넘었고, 영덕에서는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산 정상부의 풍속은 지상보다 서너 배 강했고, "불씨가 산을 넘어 다녔다."라는 주민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사람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한 산불과 강풍 탓에 산림청은 피해 면적 집계를 멈췄고, 기존의 산불 상황도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상황도를 대체하기 위해 열어본 천리안 위성영상에선, 화선(火線)이 이미 동해안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녁까지만 해도 안동과 의성에 머물렀던 화선이 밤이 되자 영덕의 동쪽 끝 해안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위성영상으로 추정한 산불의 위치를 특보에 사용할지 내부 논의도 거치고 위성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너무 급격히 번진 산불에 대한 의심 탓에 끝내 쓰지 못했습니다.
곧 영덕 전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됐고 통신이 끊긴 영덕에서는 간헐적인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대로, 불은 정말로 영덕을 가로질러 동해안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들어온 영상에선 바닷가 마을 전체가 불에 탔고, 선박과 양식장이 전소돼 있었습니다. 바람이 실어 나른 이번 산불은 경북에서만 9만 9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기상 지표들은 산불을 더욱 키우고, 산불 발생 위험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3월 말, 전국 평균기온은 14.2℃로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 지역의 상대습도는 평년보다 15% 포인트 이상 크게 낮았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3월 대형 산불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76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14톤을 기준으로, 55만 명이 1년간 배출하는 수준입니다. 산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산불이 기후변화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다시 작용한 셈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부주의한 불씨에서 시작되는 '인재(人災)'입니다. 단순한 슬로건인 '산불 조심'은 이제 작은 실천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실천이 됐습니다.

3월 전국
평균기온
14.2℃
역대 최고

3월 대형산불로
발생한 온실가스
760만 톤(추정)
= **55만 명의 1년 배출량**

'산불 조심'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실천이 됐습니다.



지구를 위해 걸을 시간

기후변화로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예보는 빗나가기 일쑤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대신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주목하자. 우리가 이미 하는 일 중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바로 걷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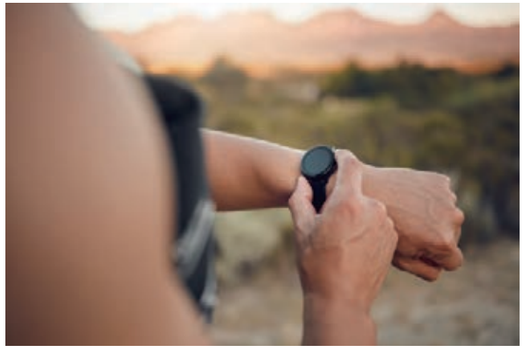
글. 허승희

걸어서 지키는 것, 지구 그리고 건강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1km를 이동할 때 승용차는 192g의 탄소를, 버스는 105g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는 탄소가 단 1g도 배출되지 않는다. 걸으면 지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건강해진다. 대표적인 걷기의 효과로는 혈액순환 증가,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기능 증진, 스트레스 완화, 성인병 예방, 면역기능 증진, 골다공증 예방 등이 있다. 어디 그뿐일까. 우울증과 불안증에 걷기가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걷기가 대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인데, 같은 이유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대한스포츠학회에 따르면 걷기의 목적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몸이 좋지 않거나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걷기를 한다면 무작정 빠르게 걷기보다는 보폭을 좁게 해 분당 90보 내외로 걷는 것이 좋다. 참고로 산책의 속도가 분당 100보 내외이니 살짝 느리게 걷는 셈이다. 건강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속도는 분당 120보 내외로 활기차게 팔을 흔들어 가며 걸으면 된다.

걷기도 엄연히 '운동'인 만큼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배가 된다. 건강하기 위해 무작정 걸었다가 관절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만큼 바른 자세로 걷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정면 10미터를 바라본다. 양팔은 자연스럽게 걷는 리듬에 맞추어 어깨를 축으로 앞뒤로 흔들되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다. 무릎이 서로 스칠 듯한 느낌으로 11자로 걷는다. 내딛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바깥쪽, 발가락 순으로 힘을 이동한다.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 천천히 시작해서 약간 빠른 정도로 속도를 높이며 걸으면 효과가 더욱 좋다.







익숙한 곳을 새롭게, 낯선 곳을 친근하게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건강관리 앱 '워크온'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워크온'은 걷기 습관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시에서 공동주최하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아라마린 걷기 챌린지'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 진행하는 '건강도시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연계해 걷기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캐릭터 잡기, 사진 인증, 마일리지 등의 챌린지에 참여하며 걷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좋은 날씨에는 귀찮더라도 못 이기는 척 걸어보자. 항상 타던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타고, 한두 정거장 먼저 내리거나 일부러 조금 지나쳐 내려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익숙한 우리 동네의 공기가 새로울지도 모른다. 여행지에서도 가까운 거리는 택시에 올라타는 대신 걸어보고 쌩하고 지나가던 낯선 풍경을 충분히 관찰해보자. 내 발걸음이 닿은 만큼이 내 세계라고 하지 않는가.

비와 태양이 만드는 기적, 무지개

예고 없이 찾아와 더 반가운 '무지개'라는 기적.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무지개는 빗줄기가 줄어들고,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열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다.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뜨는 현상을 더듬어보며 비와 무지개의 관계성을 파헤쳐 봤다.

글. 편집실

흔히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뜬다'라고 표현한다.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선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무지개는 비와 태양이 함께 있어야 탄생한다.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태양 빛과 물방울이 만나 이루어지는 과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가 갠 직후, 땅에 비의 흔적이 축축하게 남아있듯이 하늘에도 습기가 남아있다.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물방울이 무지개를 만드는 필수 재료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과 하늘의 햇빛이 만나면, 물방울 안에서 빛이 굴절되어 반사되고 또 굴절되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굴절과 반사의 과정에서 빛이 파장되어 우리 눈에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바로 빨주노초파남보의 색으로 말이다.

무지개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각도'다. 나에게 보이는 무지개가 바로 옆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지개는 '42도'라는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42도 빛의 굴절만 인식하여 볼 수 있어, 웬만큼 큰 무지개가 아닌 이상 비슷한 곳에 서 있을 지라도 무지개가 보이는 유무가 다를 수 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완전히 맑은 하늘에서도 볼 수 없는 무지개. 오직 비와 햇빛이 공존하여 합을 이루는 찰나에만 비추는 무지개는 가히 기적이라 부를 만하다.

★방물특파원★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여행자 메이와 떠나는 대힐링 담양 투어

풍경, 먹거리, 핫플까지 모든 게 완벽한 하루!

#담양여행 #힐링투어
#여행자메이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가족과 떠나기 좋은 국내 여행지 추천

#진천 농다리
#정선 레일바이크
#포천 허브아일랜드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출근 승낙? YES!

#출근해야지 #별수없지
#그래니즐겨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WATERWORLD



알아두면 일상에 도움되는 유용한 사이트 모음.ZIP

#MYWATER물정보포털
#국가건강정보포털
#책읽어주는도서관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착각해도 괜찮아 딩딩딩…

#방울이의 직장생활
#신입 방울이 사원

<물, 자연 그리고 사람>

5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홍○석(5200)

세기의 소울메이트 이야기를 보니 흐뭇해지네요. 특히 오드리 햅번과 지방시의 서로를 향한 의리와 믿음이 그들의 사이를 더 빛나게 한 것 같아요. 갈수록 사회의 신뢰가 약해지는 요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길○덕(7526)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환경과 전문 교사진이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육아휴직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제도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정말 앞서가는 기업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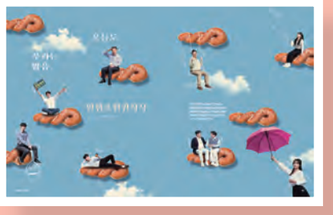
백○호(7526)

수자원위성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의 수자원위성이 발사되면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상황과 수자원을 감시해 물 재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멋진 기술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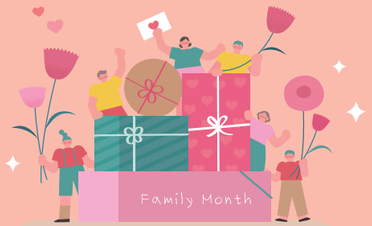
조○동(8872)

진해는 오래전부터 벚꽃의 성지였지요. 잠시 잊고 지내던 진해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진해군항제의 공략법과 맛집 등이 담겨 있으니 가이드북 한 장 들고 떠난다는 생각으로 다녀오렵니다.



정○호(7372)

여러 지사로 전보를 다니다 보면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후배도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든데요. '수타벅스가 간다'를 통해 반가운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에 같이 즐겁게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라요. 모두 잘 지내요!



EVENT 01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강○성(1661)	유○라(0017)
김○경(7925)	이○름(0090)
김○원(3017)	장○혜(1041)
김○은(2116)	전○미(9484)
박○배(9925)	황○경(0411)

EVENT 02
K-water 광고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10명

김○균(1040)	유○예(6017)
김○문(5120)	이○우(4043)
김○원(2974)	이○지(9688)
김○주(8900)	이○현(5560)
박○진(0226)	임○선(6115)

EVENT 03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강○정(6153)	신○원(2791)
박○운(5552)	채○현(2590)
송○원(3212)	

※ 6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EVENT 0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6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한화 이글스 야구공(5명)
접수 마감일 6월 20일
선물 발송일 6월 30일

응모하기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EVENT 02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전사 홍수대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준공 40주년을 맞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참여방법
❶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❷ 1:1 채팅방 클릭
❸ 정답/성함/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10명)
접수 마감일 6월 20일
선물 발송일 6월 30일

응모하기

마음을 표현할 땐

방울이 편지지를 접어요

'어버이날'이라는 핑계 삼아 그간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전한 사람들.
너도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때 방울이 편지지에도 큰 사랑이 담겼다.
독자들의 방울이 편지지에는 어떤 마음이 담겼을까.



강O정(6153)

어버이날이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박O운(5552)

제게 스승님 같은 차장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송O원(3212)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의 따뜻한
마음속에 방울이 카네이션도 짠!



채O현(2590)

부모님께 드릴 선물에 방울이
카네이션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신O원(2791)

고운 우리 할머니에게 방울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마음처방편 방울이 편지지

내 맘대로 활용하는 인증샷 이벤트

방울이 편지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방울이 유리컵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6월 20일
선물 발송 6월 30일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사랑하는 귀하



약

사랑하는 귀하

(세 남, 여)

하루 회 일분

매 시간마다 포(정) 씩 복용

☐ 아침 ☐ 점심 ☐ 저녁
☐ 공복 시 ☐ 기상 즉시

날짜	20 년 월 일
약사	

방울이약국

(연락처)

주의 ※ 약이 아닙니다. ※ 타인이 복용시 상사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음이 잘못 전달되었을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이는 곳

마음을 솔솔
상처를 솔솔

보고 싶을 때 먹는 약
힘들 때 먹는 약
그냥 보고 싶을 때 먹는 약
사과하고 싶을 때 먹는 약
심쿵할 때 먹는 약
외로울 때 먹는 약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보아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